한국고전연구 71집/한국고전연구학회/2025/5~32쪽.
http://dx.doi.org/10.20516/classic.2025.71.5

# 죽어가는 몸의 기록을 통한 애도*

## -장혼의 〈기척(記慽)〉을 중심으로-

강수진**

〈차 례〉

1. 들어가며
2. 발병부터 사망까지, 죽어가는 몸을 기록하는 방식
3. 기록을 통한 애도: 죽음의 기억을 반추하여 상실을 받아들임
4. 나오며

〈국문초록〉

18~19세기 여항 문인인 장혼은 1807년에 6세의 나이로 사망한 손자 증흡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기척(記慽)>을 창작하였다. <기척>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절한 손자를 애도하는 부분은 글 전체의 1/3 정도이며, 나머지 2/3는 손자의 몸에 나타난 증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기척>은 애도의 내용보다는 손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본고에서는 장혼이 요절한 손자를 애도하려는 목적으로 창작한 글에 망자를 잃은 슬픔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 망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가 이를 애도의 방법으로 택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장혼은 발병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손자의 몸이 물질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 이는 저자가 천연두에 걸린 손자를 치료하지 못해 결국 손자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환기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는 손자에게 나타난 병증과 그에 따라 투여한 약의 종류, 약을 먹은 후의 증상, 치료를 포기한 뒤에 임종하기까지 손자의 몸에 나타난 변화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이처럼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고전연구학회 131차 하계학술대회에서 '애도의 물질성, 그리고 고전문학'이라는 기획주제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www.kci.go.kr

손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그는 손자가 병을 앓았던 시점으로 돌아가 당시 가장으로서 손자의 병간호를 주도하였으나 결국은 손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신을 반성하였다. 또한 저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에 손자를 잃은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손자의 마지막 모습을 추억하고, 이를 통해 손자를 상실하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즉, 저자는 기록을 통해 손자의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척>을 창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애도하는 글의 기본적인 형식을 받아들이되 일부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한 것이다.

장혼의 <기척>은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망자의 죽어가는 몸을 환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망자를 상실한 슬픔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애도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의례적인 애도 글에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관념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과정을 사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문학의 영역에서 망자를 기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장혼, 기척, 애도, 몸, 죽음

## 1. 들어가며

애도하는 글은 애도 대상과 작자와의 관계,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한 글의 종류에 따라 애도의 내용 또는 작자의 감정 표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묘지명이나 행장은 애도 대상의 일생을 기록하고 망자를 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며, 망자의 제사 때 낭독하는 제문은 작자가 애도 대상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구성한다. 묘지명, 제문, 애사 등 망자를 애도하는 문체 외에도 시 또는 기(記) 등을 지어 망자를 애도하고 추억하기도 한다. 망자가 작자의 가족이나 평소 가깝게 지낸 사이라면 망자와의 추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사망자를 상실한 슬픔을 절절하게 표출한다. 이처럼 글의 종류나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대체로 망자를 대상으로 글을 창작할 때는 망자의 생애, 망자와의 추억을 기록하고, 망자를 잃은 슬픔을 표현

www.kci.go.kr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18~19세기에 활동한 여항 문인 장혼[1]은 49세 때인 1807년에 첫 손자인 증흡의 죽음을 슬퍼하며 <기척(記慽)>을 창작하였다. 이 글은 제목 그대로 슬픈 일, 즉 첫 손자가 병에 걸려 요절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장증흡은 천연두에 걸려 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장혼은 손자가 사망하고 약 2주가 지난 뒤인 12월 30일에 <기척>을 지었다. 저자는 이 글의 끝에 장례를 치른 다음 날에 자신의 아버지(장우벽)가 지은 시를 수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장례를 치를 때 묘지를 만들지 않고 매장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글은 애도 대상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지은 것으로, 저자가 어린 나이에 사망하여 기록할 만한 행적이 없었으며 매장할 때 묘지를 만들지 않았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記)라는 문체를 선택하여 애도의 글을 지은 것이다.

<기척>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절한 손자를 애도하는 부분은 글 전체의 1/3 정도이며, 나머지 2/3는 손자가 병에 걸린 이후에 어떠한 증세가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어떠한 약을 투여하였는지, 약을 투여한 결과 또 어떠한 증세가 나타났는지 등 손자의 몸에 나타난 증상을 기록하는 내용이다. 이

1) 장혼(張混, 1759~1828): 여항 문인으로, 호는 이이(而已)·이이엄(而已广)·공공자(空空子)이다. 26년간 교서관에서 봉직하였으며, 천수경과 함께 송석원 시사(松石園詩社)를 주도하였다. 장혼과 관련된 연구는 문학과 교육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문학 관련 연구는 주로 여항문학의 주제 아래 다루어졌다. 작가론과 관련된 연구로는 신복호의 「장혼의 문학세계」(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김성은의 「而已广 張混의 한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동준의 「而已广 張混 漢詩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보완적 고찰」(『한국한시연구』 30, 한국한시학회, 2022.)이 있다. 이 외에 장혼이 편찬한 『시종(詩宗)』을 다룬 연구(임규완, 「張混 編 『詩宗』 연구」, 『민족문화논총』 7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0.)가 있으며, 본고에서 다루는 <기척>과 관련된 연구로는 박동욱의 「천연두, 그 아픔과 상실의 기억 -장혼(張混)의 「기척(記慽)」을 중심으로」(『우리어문연구』 52, 우리어문학회, 2015.)가 있다. 박동욱은 천연두라는 병의 특성과 조선 시대에 이를 대처한 방식을 정리한 뒤에, 장혼이 <기척>에서 천연두로 인한 상실의 체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www.kci.go.kr

처럼 장혼은 애도의 내용보다는 손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내용을 구성하였다.

천연두에 걸린 병자의 몸 상태와 투여한 약 등을 기록한 글은 <기척> 외에도 이문건의 『양아록(養兒錄)』과 『묵재일기(默齋日記)』, 송규렴의 후손가에 전하는 서찰첩인 『선찰(先札)』에 수록된 송규렴의 편지글 등을 들 수 있다.[2] 『양아록』과 『묵재일기』에는 손자와 손녀가 겪은 증상과 이를 치료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송규렴의 편지글에는 손자며느리의 천연두를 진단하고 회복하는 과정과 각 과정에 대처하는 방식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글은 아이를 기르면서 발생한 일이나 일상을 기록하는 차원에서 치료과정을 세세하게 서술하였거나, 병자를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다. 반면에 <기척>은 손자가 죽은 뒤에 손자를 잃은 상실감을 표현하고 손자의 죽음을 애도하려는 목적으로 창작한 글이며, 망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본고에서는 장혼이 요절한 손자를 애도하려는 목적으로 창작한 글에 애도의 감정보다 망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망자의 몸이 소멸하는 과정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애도의 방법으로 택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발병부터 사망까지, 죽어가는 몸을 기록하는 방식

장혼의 <기척>은 내용상 3부분, 즉 '애도 대상(손자)에 대한 소개 - 손자가 발병하여 사망하기까지의 과정과 사망 원인 분석 - 손자의 죽음을 애도'

2) 『양아록』과 『묵재일기』와 관련된 내용은 박동욱(2015), 앞의 논문을 참조하였으며, 송규렴의 편지글에 관한 연구는 정승경의 「宋奎濂家 所藏 『先札』을 통해 본 痘瘡의 발병과 치료 경위」(『대동한문학』 70, 대동한문학회, 2022.)를 참조하였음.

www.kci.go.kr

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부분 중에서 '애도 대상에 대한 소개' 부분의 내용이 가장 짧은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나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 이름은 창(昶)으로 16살에 자부 김씨에게 장가들어 3년이 지난 뒤인 임술년 4월 27일에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께서 이름을 증흡(曾洽)이라고 지어주셨는데, 대개 겸손하라는 뜻을 붙인 것이었다. 자잘한 병치레 없이 어느덧 6살이 되자 조숙하고 총명하여 여느 아이들과 매우 달랐다.[3]

위의 내용은 애도 대상과 작자의 관계, 그리고 애도 대상이 평소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한 부분이다. 장증흡은 장혼의 큰아들 장창의 첫째 아들이며, '증흡'이라는 이름은 장혼의 아버지가 지어주었다. 장혼은, 자잘한 병치레 없이 성장하였으며, 6살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조숙하고 총명하다는 내용으로 손자 증흡이의 성장 과정과 그의 사람됨을 설명하였다. 애도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며, 작자와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은 묘지명, 제문 등과 같이 애도의 목적으로 창작되는 글의 서두와 구성 방법이 비슷하다.

장혼은 애도 대상을 소개하고 곧바로 손자에게 처음으로 병증이 나타났던 11월 22일의 일을 서술하였다. 장혼은 손자가 발병한 날인 11월 22일부터 사망한 날인 12월 15일까지, 총 24일 동안의 일을 기록하였으며, 12월 15일의 기록 다음에는 손자의 초기 병증을 정리한 뒤에 사망 원인을 분석하였다. 손자가 발병하여 사망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장혼의 관점에서 손자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내용이 이 글의 2/3가량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손자가 발병하여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 장혼, <記慽>, 『而已广集』 권14, "余有二子, 長曰昶, 年十六, 娶金氏婦, 越三載壬戌四月二十七日生男. 家君錫名曰曾洽, 盖寓謙抑之義. 無細疾恙, 居然至六歲, 其夙成穎慧, 廻異凡兒."

www.kci.go.kr

| 날짜 | 병증 | 투여한 약 |
|---|---|---|
| 11월 22일 | 체증(구토와 통증) | 소합환[4] |
| 11월 29일 | 통증으로 인한 불면과 환각 증상<br>복용 뒤에 체증은 완화되었으나 각열(脚熱)로 잘 걷지 못함 | 가미회생산[5], 소합원<br>치시탕[6](의원의 처방) |
| 12월 3일 | | 변향부, 칡뿌리, 지실, 창출[7](의원) |
| 12월 4일 | 복용 이후 팔과 배에 통증이 생김 | |
| 12월 5일 | 의원이 처방한 약을 먹은 후에 발열과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나타남 | 향갈탕[8]<br>도씨평위산[9](의원) |
| 12월 6일 | 설사(회충)<br>얼굴과 몸에 반점이 돋아남 | |
| 12월 7~9일 | 담백색 반점(과립)이 얼굴과 몸에 퍼짐 | |
| 12월 10~11일 | 반점이 부풀어 오름<br>얼굴에 난 반점이 움푹 파임 | 보원탕[10](의원) |
| 12월 12일 | 반점에 고름이 참<br>계고를 복용한 뒤 침을 연달아 토함. | 계고[11]4~5마리(의원) |
| 12월 13일 | 병이 위독해져 죽을 지경에 이름<br>종기를 긁어서 얼굴에 피가 낭자 | 보원귀용탕[12]<br>패초산 가루<br>수양을 달인 물[13] |
| 12월 14일 | 임종에 가까워져서 치료 중단<br>숨이 막혀서 유언을 겨우 함<br>정신이 혼미해짐 | |
| 12월 15일 | 말을 못 하고 물을 마시지 못함<br>사망함 | |

4) 소합환(蘇合丸): 사향, 주사 등으로 만든 환약으로, 위장을 맑게 하고 정신을 상쾌하게 한다.

5) 가미회생산(加味回生散): 곽란, 복통, 토사를 치료하는 처방이다.

6) 치시탕(梔豉湯): 잠을 자지 못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7) 변향부(便香附): 향부자(香附子)를 동변(童便)에 담갔다가 말린 것이다. 동변은 열두 살 미만인 사내아이의 오줌인데, 약재로 쓰인다.
지실(枳實): 덜 익은 탱자를 썰어 말린 것으로, 적취(積聚)에 쓰인다. 적취는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증이다.
창출(蒼朮): 삽주의 뿌리를 말린 것으로, 소화기 관련 병증에 쓰이는 약재이다.

8) 향갈탕(香葛湯): 감기 또는 독감으로 인한 두통, 발열, 오한 등의 증세에 쓰인다.

www.kci.go.kr

위의 표는 손자의 병증과 그에 따라 투여한 약, 그리고 복용한 뒤에 나타난 증상을 정리한 것이다. 장혼의 손자는 천연두로 사망하였는데, 허준의 『두창집요(痘瘡集要)』 등에서는 천연두의 증세를 발열3일(發熱三日), 출두3일(出痘三日), 기창3일(起脹三日), 관농3일(貫膿三日), 수염3일(收斂三日)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천연두는 처음 3일 동안 열이 나며, 반점이 솟아난 뒤에 부풀어 오르고, 반점에 고름이 찬 뒤에 딱지가 앉는 순서대로 병증이 진행된다. 반점이 나서 딱지가 나기까지의 기간이 12일인데, 이 기간을 잘 넘기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 위의 표를 보면, 장증흡은 11월 22일에 발병하였으나 처음에는 체증으로 판단하여 치료하였고, 12월 6일에 반점이 나타난 뒤에야 할아버지 장혼과 의원이 천연두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발열 증세가 오래도록 나타나다가 다음 단계 즉 반점이 몸에 돋아나는 단계로 들어갔으며, 딱지가 앉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위의 표에서 기록한 날짜의 간격을 보면 발병한 날인 11월 22일에 첫

9) 도씨평위산(陶氏平胃散): 음식을 먹고 체하여 열이 나고 두통이 일어나는 등의 증세에 쓰인다.

10) 보원탕(補元湯): 몸이 허약하여 온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는데, 숨이 잦고 가슴이 답답하며 식욕이 부진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추위를 타는 등의 증상에 쓴다. (『한의학대사전』(정담, 2001.)을 참조.)

11) 계고(雞膏): 노계 1마리, 생길경(生桔梗) 1뿌리, 생강 80g, 육계(肉桂) 20g, 산사(山楂) 20알, 밤 10알을 물에 달여서 약 찌꺼기를 짜낸 다음 닭뼈를 추려내고 고약처럼 되도록 달여서 먹는다.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인삼 대신으로 쓴다. (『한의학대사전』을 참조.)

12) 보원귀용탕(補元歸茸湯): 당귀·녹용 각 같은 양을 가루 내어 오매육(烏梅肉)을 무른 고약처럼 이긴 것을 귀용원(歸茸元)이라고 하고, 이를 술에 달여 먹는 것을 귀용탕(歸茸湯)이라 한다. 빈혈, 임포텐스(impotence), 허약자나 병이 나은 뒤 보약으로 쓸 수 있다. (『한의학대사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13) 패초산(敗草散)은 두창의 습기와 통증으로 몸을 뒤척이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쓰인다. (『의림촬요(醫林撮要)』 권13) 수양 달인 물은 가려운 증세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홍만선, 「두창경험방(痘瘡經驗方)」, 『산림경제』 권3)

www.kci.go.kr

기록을 하고, 그 일주일 뒤인 11월 29일의 일을 기록하였으며, 그다음에는 4일 뒤인 12월 3일의 일을 기록하였다. 12월 3일부터 사망한 12월 15일까지는 매일 증세를 기록하였는데, 12월 7~9일은 다른 날에 비해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기록한 날짜의 간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장혼이 손자의 병증이 나타나는 것에 따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비슷한 병증이 계속 나타났을 때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22일 첫 기록 이후에 일주일 동안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1월 29일에 새로운 병증, 즉 잠을 잘 자지 못하고 헛것을 보는 증상이 나타나서 이러한 증상과 투여한 약, 그리고 약을 투여한 뒤에 달라진 증세를 기록하였다. 12월 3일부터는 매일 기록하였는데, 당시에 진단을 잘못한 의원이 처방한 약을 먹고 증흡의 병세가 날로 악화되었으며, 12월 6일부터 천연두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2월 7~9일은 다른 날에 비해 간략하게 기록하였는데, 이는 반점이 온몸에 퍼지는 것 외에 다른 증상이 없었고 약을 투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매일의 일을 기록하였는데, 이 기간은 증흡의 병이 위독해져 사망한 시기이다. 이처럼 기록한 날짜의 간격을 통해 장혼이 손자의 증상, 즉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춰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장혼은 손자가 병을 앓다가 사망하기까지의 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했을까. 먼저 11월 29일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증흡이는 몸이 아파서 편안히 잠들지 못하고 꿈을 꾸었다가 깨었다가 하던 중에 눈을 뜨고 사람들을 빤히 보더니 놀라서 울고 통증을 호소하며 간간이 횡설수설하기를, “어떤 괴물이 머리를 덮어씌우려고 한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때리려고 한다.”라고도 했는데, 백 가지로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었다. 끝내 반점은 생기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서 이에 가미회생산을 쓰고 소합원 2개를 조제하여 마시게 했다. 의원을 불러 자세

www.kci.go.kr

히 진찰하게 하니, 의원이 말하기를 “이는 감한(感寒, 감기)이 풀리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치시탕을 복용하면 됩니다.”라고 하였다. 그 지시대로 하였더니 대변은 비록 잘 나왔으나 각열(脚熱)은 여전히 있어서 다시 치시탕을 마시게 했다. 그랬더니 여러 증상이 처음 복용했을 때와 같아져서 먹는 것은 조금 나아졌으나 다리가 무거워서 일어날 수 없었다. 부축하면 일어날 수 있었으나 문지방과 아랫목 사이를 또한 스스로 다닐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의원과 의논하니, “아이에게 또한 노복(勞復)과 식복(食復)의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하여, 이전의 처방에 의거하여 더 복용했다. 그 약을 더 먹으니 조금 효과가 있어서 간혹 집안의 뜰에도 나갈 수도 있었으나 병의 근원이 떨어진 것이 아니어서 아침에는 나아졌다가 저녁에는 심해지고 밤에는 열이 났다가 새벽에는 한기가 드는 등, 증상이 일정하지 못했다.[14]

위는 손자가 발병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인 11월 29일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장혼의 손자 증흡은 11월 22일부터 병을 앓기 시작하였는데, 장혼은 당시 손자의 몸 상태에 대해 “이불 속에서 갑자기 엉엉 울었다[在衾褥忽啼哭.].”, “아침부터 크게 토하고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曾洽自朝大吐敲暴痛.].”라고 기록하였다. 장혼은 처음에는 손자가 급체한 것으로 보고 소합환을 먹였으며, 천연두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관련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약을 쓰지 않았다.

위의 내용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증흡의 병세를 기록한 것이다. 11월 29일에 손자에게 이전과는 다른 증상, 즉 몸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는

14) 장혼, <記慽>, 『而已广集』 권14, “過七日而身煩不安睡, 若夢若醒, 開目瞪視人, 驚哭叫痛. 間作譫囈, 云‘有物蒙首’, 云‘有人杖毆’, 百出如一言. 終無發瘡狀, 乃用加味回生散, 調蘇合元二枚而飮之. 邀醫詳診, 醫曰:‘此是感寒, 未解表也, 可服梔豉湯.’ 如其指, 大便雖調, 脚熱尙在. 再飮則諸證如初服時, 食啖差勝, 然脚重不能起, 扶而後立, 梱奧之間, 亦不自致. 故復議醫人, 則曰:‘小兒亦有勞復·食復.’, 依前方加服. 加服之稍有效, 或出戶庭, 然病源未祛, 朝減晡增, 夜熱晨寒, 證情不一.”

www.kci.go.kr

증상, 헛것을 보고 횡설수설하는 증상이 나타나 이를 기록하였다. 장혼은 손자의 병증이 달라짐에 따라 가미회생산과 소합원을 손자에게 먹였는데, 이는 모두 복통, 구토와 같은 위장 장애에 쓰이는 약이다. 장혼은 또한 의원을 불러서 손자를 진찰하게 하고 처방받은 약인 치시탕을 먹였다. 장혼은 자신이 처방하여 먹인 약과 의원이 처방한 약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혔으며, 처방한 약을 먹인 이후에 손자의 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기록하였다.

장혼은 11월 29일의 일을 '손자의 병증 – 장혼의 처방 - 의원의 진단 및 처방 - 병세의 변화 양상 - 의원의 진단 및 처방 - 병증의 변화 양상'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그는 손자의 병증에 어떠한 약을 처방하였으며, 의원의 진단에 따라 약을 먹인 결과 어떠한 병증은 나아졌고, 어떠한 병증은 지속되었거나 심해졌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이처럼 장혼은 손자의 몸에 나타난 변화와 그에 따라 투여한 약명, 복용한 이후 손자의 몸에 나타난 증상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당시의 일을 기록하였다.

위의 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저자가 손자의 병증을 기록하되, 당시 손자를 간호하면서 자신이 느낀 감정에 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도의 목적으로 창작한 글에서, 아이가 병마에 시달리는 상황은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할아버지의 심정을 표출하지 않았다. 이처럼 장혼은 감정적인 서술은 최대한 배제하고 손자의 몸에 나타난 증상을 상세하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 12월 **초3일**, 의원의 말에 따라 변향부와 칡뿌리, 지실, 창출의 약제를 썼으나, **그 이튿날** 하늘이 밝기도 전부터 병은 증상이 더해져서 팔이 아프다고도 하고 배가 아프다고도 하였다. **초5일**에 다시 의원을 불러서 얼굴과 몸을 진찰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는 오히려 숙체로, 도씨평위산을 먹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처방에 왜황련, 말린 생강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써봤던 약재였다. 내가 황련

www.kci.go.kr

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 따지자, 의원이 “이는 곧 협식(挾食) 종류의 상한(傷寒)에 쓰는 처방으로, 그 효력은 오직 황련과 지실에만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아이종을 시켜서 곧바로 약포로 가서 조제해 오게 하자, 아이종이 돌아와서 약포 사람이 “이 처방이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하더라는 말을 전했다. 나는 다시 의원과 함께 황련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지면서, “아침에 이미 향갈탕을 써서 저녁에 또 이것을 쓰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의원은, “또 무엇이 나빠지겠습니까? 이것을 복용하면 소생할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이때 병든 아이의 대변이 잘 나오고 잠들어서 막 안정이 되어 재차 약을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이치에 당연했다. 나는 정신이 더욱 혼란해졌으나 다만 의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 자는 증흡이를 깨워서 약을 마시게 했다. 증흡이가 약을 마신 후에 밤새도록 열이 나고 답답해하는 증상이 더해져서 나는 약을 잘못 쓴 것인가 걱정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과연 설사를 한 번 하였는데 변에서 회충 한 마리가 나와서 황련은 선뜻 다시 쓰지 못했다. 얼굴과 몸을 자세히 보니 반점이 나 있어서 천연두에다가 설사병이 겹친 것인가 생각되었다. 열흘 간 약을 먹인 나머지 이러한 중병에 걸리게 된 것이다. 나는 혼과 담이 다 떨어졌다. 무슨 병인지는 알아냈으나 고칠 수 없었다. (하략)[15]

위는 12월 3~6일의 기록으로, 의원의 오진으로 손자에게 잘못된 약을 먹여서 손자의 병세가 점차 악화된 일, 12월 6일에 손자의 얼굴과 몸에 난 반점을 보고 나서야 손자의 병이 천연두임을 깨달았던 일을 기록하였

15) 장혼, <記慊>, 『而已广集』 권14, “十二月初三日, 從豎言, 用便香附·葛根·枳實·蒼朮之劑, 而自其翼天未曉, 病添證, 曰臂疼曰腹痛. 初五日, 更邀豎人, 察色按形, 乃曰:‘猶是宿滯, 陶氏平胃散爲可.’ 方有倭黃連·乾薑, 餘皆消耗之材. 余詰黃連何爲, 豎曰: ‘此卽挾食類傷寒之方, 其力專在黃連·枳實.’ 使家僮直趁藥舖製來. 家僮歸傳藥舖人曰:‘此方甚訝’云. 更與豎人, 採黃連當否, 且曰:‘朝旣用香葛湯, 夕又用此, 未知如何.’ 豎曰:‘再何傷? 服此則蘇, 毋慮.’ 是時, 病兒大便順睡方穩, 洊勿用藥, 理所當然. 余神逾昏, 只憑豎說, 攪其睡使之飮, 飮後通昔加煩懣, 余方懼爲藥所悞. 明朝果泄利一度, 産蚘蟲一條, 不敢復用黃連. 諦觀之面體發瘢痕, 疑是痘而兼之患泄. 浹旬投藥之餘, 罹此重疾, 余魂膽俱喪, 判已不可救.”

www.kci.go.kr

다. 위의 기록에서는 의원이 오진하여 잘못된 약을 처방한 일과 의원의 처방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관해 서술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자는 12월 3일에 의원의 처방에 따라 새로운 약을 먹였으나 다음날(4일) 손자에게 새로운 병증, 즉 팔과 배에 통증을 느끼는 증세가 나타났다. 5일에 의원을 불러서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의원은 숙체로 진단하고 도씨평위산을 처방하였다. 저자는 도씨평위산에 들어가는 황련이 손자의 병세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원과 처방의 적합 여부를 따졌으나, 결국에는 의원의 처방에 따라 도씨평위산을 손자에게 먹였다. 그 결과 손자에게는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그 뒤에 얼굴과 몸에 반점이 돋아났다.

이처럼 장혼이 의원의 오진과 잘못된 처방의 결과로 손자의 병이 악화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 원인이 되어 손자가 결국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 의원의 처방으로 손자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그 결과 손자의 병이 천연두임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의원의 오진과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가 위독해진 상황을 기록하면서도, 당시에 느낀 감정에 대해서는 “약을 잘못 쓴 것인가 걱정되었다.”, “혼과 담이 다 떨어졌다.”와 같이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이는 그가 의도적으로 손자를 간호하면서 또는 손자의 병증을 보고 느낀 감정을 최대한 서술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만약 당시의 상황과 그때 느낀 작자의 절절한 감정을 함께 서술하는 방식으로 기록한다면, 손자의 병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기록에서 손자의 몸이 변화하는 양상을 부각하고자 손자의 병증은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은 최대한 나타내지 않았다.

> 14일에 위기가 닥쳐서 종기를 씻기는 것과 약을 먹이는 것을 그만두었다. 한밤중에 그 할머니를 불러 보았는데, 숨이 막혀서 겨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

www.kci.go.kr

다. 탄식하며 말하기를,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는 것은 살아날 방도가 없어서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내 옷이 분뇨로 더러우니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평소에 그 숙부(장욱)와 정이 두터웠는데, 그 숙부가 마침 공무로 궐에 있었다. 증흡이는 정신이 혼미해졌는데도 오히려 숙부가 추운 계절에 고생스럽게 일하는 것을 걱정하고서 때때로 숙부가 자고 있는지 깨었는지를 헛되이 물었으니, 숙부를 그리워하는 그 모습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였다. 이날 밤은 숙부가 집에 돌아왔는지를 더 자주 물었으니, 슬프다! 그 마음을 헤아려보니 숙부와 작별을 하길 바라서였던 것 같다. 15일 이른 아침에 말을 못 하여 가려움을 호소하지도 못하더니 다시는 물을 마시지 못했다. 죽을 내왔지만 숨이 넘어가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고 혀를 차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미시(未時)쯤에 이르러 요절하였다.16)

위는 장혼이, 손자가 임종에 이르러 숨을 거두기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장혼은 14일부터 손자에게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다. 그는 치료를 중단한 이후에 손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망하였는지를 기록하였다. 14일 밤부터 손자는 숨을 잘 쉬지 못하고 말을 겨우 하였는데, 이때 손자는 자신은 이제 죽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우니 깨끗한 것으로 바꿔서 입혀달라는 내용의 유언을 남긴다. 그리고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숙부를 그리워하며 혼미한 중에도 숙부를 계속 찾았다. 15일에 손자는 말도 못 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숨을 잘 쉬지 못하다가 오후에 사망하였다. 이처럼 장혼은 손자가 사망하는 순간까지 그 몸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상세하면서도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 이 기

16) 장혼, <記慽>, 『而已广集』 권14, “十四日, 迫危矣, 廢洗及藥. 夜半呼見其祖母, 而喉閉僅能成音. 喟然曰:‘今則死矣. 死矣無生之術.’ 又曰:‘吾衣糞汚, 澣潔以着.’ 常與渠叔, 情愛篤摯, 渠叔適以公故在禁中. 渠神情昏奄, 猶念其寒節勞碌, 時時虛問乃叔之寢寤, 戀戀之想, 令人起愴. 是夜尤頻問其歸第, 悲哉! 揣其意, 要與之訣也. 十五日詰朝, 不能言不能痒, 不復飮水. 進粥殽殽幾絶, 而舌嘖嘖不止, 至未時量而夭.”

www.kci.go.kr

록에서도 당시 장혼이 느낀 감정과 관련된 부분은, 손자가 숙부를 찾는 것을 보니 슬프다고 서술한 것뿐이다.

이처럼 장혼은 손자가 발병한 날인 11월 22일부터 사망한 12월 15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는데, 그가 기록한 내용은 손자의 병증과 투여한 약, 그리고 약을 투여한 이후 나타난 증상에 관한 것이다. 약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자의 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또는 손자의 몸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그는 아픈 아이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에 관해서는 서술하지 않거나 간략하게 제시하였으며, 손자의 몸 상태를 기록하는 데에 치중하였다.

그는 손자가 사망한 일을 기록한 다음에 손자가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요약정리하고 손자가 사망한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두창을 앓은 날을 계산해 보면 날짜가 총 12일이었다. 통증은 콧물이 흐르고 입이 매우 마르는 것으로 시작하여 먹으려고 하여도 기가 역류하여 먹은 것을 아래로 내려보낼 수 없었으며, 대변은 처음에 설사하다가 중간에는 나오지 않다가 끝에 가서는 이질 증세가 있었다. 방바닥이 매우 따뜻한 곳에 누워 있어도 온몸에 크게 한속이 든 것이 3일이었다. 전후에 약을 쓰기는 했으나 한 번도 병에 맞는 약제를 써 보지 못했으니, 아아, 애석하고 애석하도다. 기골과 생김새가 단명할 상 같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잘못 치료한 것을 이겨내지 못해서이다. (중략)
>
> 당초에 협식증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3~4첩의 약을 써 보다가 마침내 그만둘 수 있었다. 다시 병이 났을 때 두창이 점점 진행되는 것을 판별하지 못하고, 또 시령(時令)을 어기고 망령되이 황련을 써서 진원(眞元)을 손상시켜 양기를 줄어들게 하고 오한에 들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 첫 번째 한스러운 일이다. 계고를 증흡이가 거세게 거부했는데도 내가 도리어 억지로 먹였는데, 그것이 해가 되어 번위(翻胃)와 구토하는 증세가 되었으니, 이것이 두 번째 한스러운

www.kci.go.kr

일이다. 집이 가난하여 재물이 없어 좋은 의사에게 널리 물어보지 못했으니, 이것이 세 번째 한스러운 일이다. 유화일(遊禍日)은 약을 먹이기에 좋지 않은데 이날 낮에 약을 두 번 먹였으니, 이것이 네 번째 한스러운 일이다. 평상시에 음식은 어른의 양을 먹었는데, 얼굴이 노래지고 다리가 아프면서 감질에 걸린 것처럼 먹지 못했으니, 일찍이 감질을 치료하는 약제를 써 보지 못한 것이 다섯 번째 한스러운 일이다.[17]

위의 글에서 장혼은 손자가 천연두를 앓은 날을 12일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발열 단계부터 고름이 차는 단계까지의 날짜를 계산한 것이다. 12월 3일에 잘못된 약을 먹고 그 결과로 발열하다가 반점이 났으므로, 3일부터 천연두를 앓다가 15일에 사망한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그는 손자의 증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되 천연두의 직접적인 증상, 즉 반점이 나기 전까지의 증상만을 정리하였다. 이는 발병 초기부터 반점이 나기까지 손자의 병이 무엇인지 몰라서 대처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천연두의 전조 증상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요절한 아이를 애도하는 글에서는 대체로 아이가 일찍 죽을 운명을 타고난 것을 한탄하는 방식으로 애도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장혼은 손자가 사망한 원인에 대해 요절한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아들이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라고 밝힌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후회하는 점 5가지를 서술하였는데, 병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약을 잘못 써서 악화된 것,

17) 장혼, <記慽>, 『而已广集』 권14, “以痘計日, 日凡十二. 自始痛鼻流涕·口甚渴, 欲食氣逆不能下, 大便始泄中歇, 終而後利. 臥堎甚溫, 而擧體大寒粟者三日. 方悔前後藥餌, 一未試當劑也, 嗟乎嗟乎! 惜哉惜哉! 氣骨形貌, 不似短折之相, 而遽爾至此, 此爲父祖者不克治療之過也. (중략) 當初枉料挾食, 試藥三四貼, 迄可休矣. 及其再病也, 不辨痘漸, 且違時令, 妄用黃連, 戕斲眞元, 至於陽脫寒戰, 一恨也. 雞膏渠之固却, 余反逼飮, 其害爲翻胃·嘔氣, 二恨也. 家貧無財, 不能博詢良醫, 三恨也. 遊禍日, 不宜服藥, 而伊日日再服藥, 四恨也. 居常飮食等丈夫, 而面黃脚羸, 類乎疳疾, 未嘗一試治疳之劑, 五恨也.”

www.kci.go.kr

계고를 잘못 먹여서 위가 뒤집히고 구토하는 증세가 나타난 것, 좋은 의원을 데려오지 못한 것, 유화일에 약을 먹인 것, 손자가 아프면서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이를 치료하는 약을 쓰지 못한 것이다. 즉, 그는 손자의 사망 원인은 자신이 손자의 병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약을 잘못 쓴 것, 그리고 의원의 잘못된 진단을 따랐던 것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손자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부분에서도 짧은 생을 타고난 손자의 운명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치료가 실패했던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그는 손자가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를 정리하는 부분을 기록할 때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손자의 몸에 나타난 변화를 상세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 3. 기록을 통한 애도: 죽음의 기억을 반추하여 상실을 받아들임

장혼은 <기척>에서 손자가 발병하여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고 손자가 사망한 원인을 밝힌 다음에 손자의 생전 행적과 손자의 부재로 자신이 느끼는 상실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애도'라는 창작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은 글 전체의 1/3가량을 차지하며, 그 내용을 구성한 방식은 묘지명이나 행장 등 망자를 애도하는 문체의 글과 비슷하다.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더구나 증흡이의 사람됨은 외모가 빼어나고 도량이 넓었으며, 나이 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생각했으며, 또래가 말하지 못하는 것도 말할 수 있었다. 한마디 말을 듣고 한 가지 일을 보아도 반드시 그 근본에 관해 깊이 연구하고 해석한 다음에야 그만두었다. 몸으로는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는 망

www.kci.go.kr

령된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 손은 장난치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물건은 부당한 것을 취하는 일이 없었다. 증흡이와 비길 사람을 헤아려보면 더불어 짝이 될 사람이 드물었으니, 진실로 기특한 아이였다. 비록 6살이었지만 완연히 성동(成童) 같았고 성인처럼 의젓하였으니, 그를 보면 누군들 아끼지 않았겠는가. 증흡이가 요절하게 되자 인근 마을의 사람 중에 신분과 노소를 막론하고 놀라고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문병 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았다. (중략)

나 스스로 위안하고자 하여도 혼자 있으면 증흡이 생각이 끊이지 않아서 암담하여 뼈가 녹는 것 같고, 평소의 예쁜 얼굴이 여전히 눈에 아른거리며 아팠을 때 주고받았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나가고 들어올 때 누가 나와서 나를 기다리겠으며, 편지가 왔을 때 누가 가지고 와서 나에게 알리겠는가. 그 외에 행동과 말, 웃음소리가 하나하나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지만 다 세세하게 말하기 어렵다.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 이리저리 뒤척이고, 가슴이 막힌 것이 비질(痞疾)에 걸린 것 같고 마음이 괴로운 것이 불타는 것 같으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하염없이 오열하였다. 진실로 보통 사람이라면 정을 잊을 수 없을 것이며 잊으려고 하여도 하지 못했을 것이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가.[18]

위는 <기척>의 후반부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내용상 손자 증흡의 생전 행적을 기록한 부분과 저자가 손자를 추억하며 슬픔을 표출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손자의 행적을 기록한 부분을 살펴보면, 손자가 뛰어난 자질을 지닌 아이였음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글의 첫머리에 나오는, 애도 대상에 관한 소개 부분에서 제시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18) 장혼, <記慽>, 『而已广集』 권14, “况其爲人, 容姿秀朗, 局度弘裕, 志慮出長老之所不思, 言語及儕流之所不道. 聞一言見一事, 必究解其本原而後已. 身無妄擧, 口無妄言, 手不知伎戲, 物不有妄取. 數渠倫比, 罕與爲儔, 誠奇物也. 雖在六齡, 宛然成童, 儼如巨人, 見者孰不珍愛. 及其夭沒也, 南北鄰里上下老少, 莫不驚嗟, 臨問而飮泣者亦多. (중략) 自欲寬譬, 然獨居則油然心思, 黯然骨消, 平日婉孌之容尙留目, 病時問答之聲宛在耳. 出入之際, 誰進候余, 書札之傳, 誰珮告余? 若其他動止談笑種種可掬之態, 難悉毛擧. 坐臥輾轉, 胸結如痞, 心煩如燬, 嗚咽漣而者, 殆無虛日. 誠凡品之人, 不能忘情, 欲罷不能者也,此當奈何?

www.kci.go.kr

서술한 것이다. 여기에서 애도 대상이 어리지만 범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요절한 아이에 관한 묘지명이나 제문 등에 자주 등장한다. 손자가 6세에 사망하여 행적이라고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는 생략되었지만, 장혼은 손자의 행적을 서술한 다음에 손자의 죽음으로 가족이 겪은 슬픔이 어떠한지를 제시하였는데, 이 내용을 통해 손자가 증조부모 즉 장혼의 부모와 더 가까이 지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19] 손자는 평소 증조부모와 가까이 지냈으며, 이 때문에 저자는 손자가 죽은 뒤 자신의 부모님이 겪을 상실감을 걱정하였다.

---

19) 이와 관련된 내용의 번역문과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 나는 때를 잘못 타고나서 불행하게도 다리 한쪽을 절게 되어 부모님의 구체(口體)를 봉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성격은 또 거칠고 못나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하였다. 비록 잗다란 물건이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드리고자 애써 구하려고 하였는데, 다행히 이러한 영특한 아이를 얻어서 양친을 모시는 데 슬하에 노년의 즐거움이 되게 하였다. 비록 집이 달아놓은 종과 같아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여 콩죽이라도 드리기 어려웠는데, 4대가 같이 살며 부모, 형제, 숙질, 조손이 서로 더불어 아침저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가난이 치욕이 되는 것도, 춥고 굶주리는 것이 고달픔이 되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내가 복이 적어서 팔순의 부모님에게 이런 참혹한 일을 겪게 해드렸으니,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는가. 나는 가문이 쇠하고 박복하여 끝내 형제나 누이가 없어 외로이 내 한 몸뿐이고, 다만 두 아들이 있고 다른 딸아이는 없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특히 예뻐하셨는데, 어느 것이라도 비길 수 없을 정도였다. 자식을 대하듯이 손자를 대하시고, 수족처럼 의지하시고 지팡이처럼 의지하셔서 주변에 잠시라도 손자가 없으면 안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를 잃으신 것이다. 또 해가 바뀌는 때가 되어 경물을 볼 때마다 증흡이를 생각하셔서 먹고 자는 것이 편치 않으시니, 나는 부모님이 매우 걱정스럽다.[噫! 余生不辰, 不幸一足跛躄, 不能負販以養親之口體, 性又悖劣, 不能安親之心志. 雖纖毫物, 務欲求慰悅親意者, 而幸得以此兒寧馨, 奉侍兩親, 以供膝下晩暮之娛. 雖室如懸磬, 菽水難承, 四世同居, 父子兄弟叔姪祖孫, 相與日夕歡樂, 不知貧窮之爲辱·凍餓之爲苦矣. 以余眇福, 忍使八耋父母貽此慘愕, 其心爲何如哉! 余門衰祚薄, 終鮮昆季姊妹, 筭孑一身, 只有兩男, 而無佗兒女. 故老人之鍾愛此兒, 無物可喩. 若子視若孫視, 手足恃笻杖恃, 左右不可斯須無者, 而一朝失之. 且値歲色之交, 觸物生感, 寢食靡甘, 余爲之愍切.]”

www.kci.go.kr

인용문의 2번째 문단은 손자가 죽은 뒤에 저자가 겪은 상실감을 표출한 부분이다. 장혼은 손자가 죽은 뒤에 어떠한 상황에서 손자가 떠오르는지, 손자의 어떠한 모습이 그리운지 등을 절절하게 서술하며 애도의 감정을 표출하였다. 그는 자신이 집에서 나가고 들어올 때 손자가 배웅하고 마중 나왔던 일, 편지가 오면 손자가 이를 전해줬던 일 등 일상에서의 추억을 바탕으로 손자를 상실한 슬픔을 표출하였다. 또한 병상에서 손자와 주고받았던 대화와 같이, 병간호하면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글의 후반부에서 장혼은 손자와의 추억을 매개로 손자를 상실한 슬픔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였다. 위에 인용한 내용 다음에는 손자를 어떻게 장례 치렀는지 서술하고, 이어서 장혼의 아버지가 증손자(증흡)를 애도하며 지은 시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기척>의 전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1 | 애도 대상 소개 |
| 2 | 애도 대상이 죽어가는 과정(발병부터 사망까지) |
| 3 | 애도 대상이 사망한 원인 분석 |
| 4 | 애도 대상의 생전 행적 |
| 5 | 애도 대상을 상실한 슬픔 표출 |

이 글의 애도 대상인 장증흡은 6살에 사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위의 표에서 4번에 해당하는 내용, 즉 망자의 생전 행적은 짧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1번과 4번, 5번의 내용은 묘지명, 행장, 제문 등과 같은 망자를 애도하는 글의 구성을 따른 것이다. 즉, 위의 표에서 2번과 3번 내용을 제외하면 이 글은 전체적으로 망자를 애도하는 글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애도의 글 중간에 손자가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손자가 사망한 원인을 밝혔다는 점은 여타

www.kci.go.kr

의 애도 글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어린아이를 애도하는 묘지명이나 제문에서 아이가 사망한 원인 또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아이가 병들어 누워 있었던 20여 일 동안 음식물을 목으로 넘길 수도 없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오직 약물(藥物)을 찾으면서 아무리 괴롭더라도 반드시 억지로 복용을 하곤 하였다. 그리고 어른이 앞으로 가까이 다가앉기라도 하면, 곧바로 사양하며 말하기를. '더러운 병에 걸렸으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는 단정히 양손을 마주 잡고 베개를 바로 하였다. 이런 와중에 눈을 붙이지도 못하면서 한 번도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피부와 살이 모두 문드러지는 상황에서도 정신과 사려만은 끝내 어지러워지지를 않았다. 아이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옷과 요를 살펴보건대, 침을 흘리거나 변이 묻어 더러워진 자국이 하나도 없었으니, 그 아이의 정결하고 단정한 자세가 이와 같았다. 아, 애석한 일이다. (하략)[20]

ⓑ 의원이, 너는 천연두를 앓은 뒤에 진원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다른 병증이 쉽게 침범할 수 있으니, 마땅히 몸을 보익하는 탕제를 많이 복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내가 당시 전야(田野) 사이에서 정처 없이 살고 있던 터라 약물을 계속 댈 재력이 없었고, 또 네 몸과 정신이 다소나마 나아졌고 음식을 차츰 먹게 되었기에 그다지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고 단지 약 몇 첩만 쓰고 그만두었다. 몸속으로 은밀히 기력이 쇠약해졌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허기(虛氣)가 쌓여 병이 되어 끝내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어찌 아니겠느냐. 아, 애통하구나. (하략) [21]

---

20) 이식, <亡兒老農壙誌銘>, 『澤堂集』 권10, "兒寢疾二十餘日, 食不能下咽, 唯求藥物, 雖苦必强進. 長者近前, 卽辭曰: '病穢毋近我', 端拱正枕, 目不交睫. 而未嘗呼痛, 至肌肉盡毁, 而精神思慮不昧. 旣死, 視其衣褥, 絶無涕唾便液染涴, 其端潔如此, 嗚呼可惜已."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의 원문과 번역문을 인용하였음.

21) 김수항, <祭亡兒昌順文>, 『文谷集』 권23, "醫言'汝痘後眞元未復, 他證易乘, 宜多用補益之劑', 而余方棲遑田野間, 無財力以繼藥餌, 且以汝形神稍完, 飮噉稍

www.kci.go.kr

ⓐ는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죽은 아이 노농의 광지명[亡兒老農壙誌銘]>에서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부분이다. 택당은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빼어난 자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하였다. 아픈 와중에도 약을 거부하지 않았고, 임종 시에도 단정하고 정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6살 아이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이 또한 망자에 대한 관용적 표현의 하나로, 택당은 아이가 뛰어난 자질을 지닌 사람임을 강조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아이가 기억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아이의 죽음에 관해 위와 같이 기록한 것이다.

ⓑ는 김수항(金壽恒)의 <죽은 아이 창순에 대한 제문[祭亡兒昌順文]>에서 창순의 죽음과 관련하여 서술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김수항은 아이가 죽은 원인을 천연두를 앓은 뒤에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데서 찾았다. 이처럼 아이가 죽은 원인을 제시하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어 자책하는 내용은 <기척>과 비슷하다. 그러나 <기척>과는 달리 아이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은 간략하게 제시하였으며, 김수항의 글은 죽은 아이와의 추억과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와 ⓑ에 비해 장혼의 글은 아이가 발병하여 사망하기까지의 과정과 그때 나타난 몸의 변화를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손자를 잃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환기함으로써 장혼 자신이 손자의 병에 대처한 방식을 반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글을 지었을 당시 장혼의 집에는 4대가 살고 있었고, 그는 가장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손자가 아팠을 때 그가 약을 처방하였고, 의원의 진단과 처방이 의심스러웠을 때도 이를 따를지 말지를 그가 판단하여 결정했다. 또한 사망한 손자 증흡은 그에게 첫 손자였고, 그는 처음으로 천연두에 걸린 손자를 주도

進, 猶不之深憂, 只試數貼藥而止矣. 豈其潛銷暗鑠於中, 而人莫之覺, 積虛成病, 終至不可救之域耶? 嗚呼痛哉!"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의 원문과 번역문을 인용하였음.

www.kci.go.kr

적으로 치료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는 가장으로서 손자의 치료를 실패한 경험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고통스러운 기억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본 것이다.

이는 그가 손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보다는 손자의 몸에 나타난 변화에 초점을 맞춰 서술한 것과도 관련된다. 장혼이 <기척>을 지은 것은 손자가 사망하고 2주 정도 지나서였다. 그가 이 글에서 손자의 몸 상태 및 치료과정에 관해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병간호하면서 그에 대해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가 손자를 간호하면서부터 손자의 증상 및 투여한 약 등에 관해 기록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척>을 지은 것이다. 기존의 기록을 토대로 애도하는 글을 지음으로써 저자는 손자를 간호하였던 상황을 다시 체험하고, 이를 통해 과거의 자신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저자는 손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다시금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손자의 병에 잘못 대처한 자신을 반성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장혼이 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이다. <기척>의 내용에 따르면 손자가 죽은 날짜는 12월 15일이며, 3일째 되는 날에 손자를 고양에 있는 선영에 묻었다. 그리고 장혼은 '정묘년(1807) 제석 밤에 울면서 쓴다.[丁卯歲歲除夜, 揮淚而識.]'는 구절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기척>은 한 해가 끝나는 날에 손자를 추억하고 그를 애도하는 목적으로 창작한 것으로, 저자가 그해의 일을 돌아봤을 때 손자가 사망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자는 손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날짜별로 기록함으로써 손자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러한 기억을 통해 손자가 부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또한 글을 지은 시점에서 보면 장혼은 최근까지 병에 걸린 손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병상에 있는 손자의 모습이 기억에

www.kci.go.kr

가장 강하게 남았을 것이다. 그에게는 괴로운 기억이지만 손자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손자가 병에 걸려 사망하여 이 세상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 4. 나오며

장혼은 자신이 겪은 손자의 죽음을 <기척>에 담아냈다. <기척>은 장혼이 손자를 애도하는 목적으로 창작한 글로, 전체적으로 묘지명이나 제문 등과 같이 애도하는 글의 구성을 따르되, 그 안에 손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장혼은 손자의 병세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약을 투여하였는지, 복용한 이후에는 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죽어갈 때는 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손자를 애도하는 내용은 비교적 짧게 제시하였으며, 손자의 행적을 서술한 부분은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기척>에서와 같이 애도하는 글에서 망자가 생전에 했던 일이나 망자를 잃은 슬픔을 중심으로 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망자가 병에 걸려 사망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흔치 않다. 장혼은 가장으로서 천연두에 걸린 손자를 주도적으로 치료하였으나, 손자의 병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의원의 잘못된 진단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치료의 적기를 놓쳐 손자가 사망하였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고통스러운 기억을 환기하고, 이를 통해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였다. 또한 저자는 손자를 병으로 잃은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손자의 마지막 모습을 추억하고, 이를 통해 손자를 상실한 현실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장혼이 기존의 애도하는 글의 형식을 변용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도

www.kci.go.kr

의 글을 작성한 것은, 손자의 치료에 실패한 경험을 돌아봄으로써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고 손자를 상실한 슬픔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이다. 이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를 잃었을 때 슬픔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 중점을 둔 기존 애도 방식의 틀을 벗어나, 망자의 죽어가는 몸을 환기함으로써 망자를 상실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새로운 애도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장혼의 <기척>은 기존의 애도하는 글에서 망자의 죽음을 관념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인 현실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장혼은 망자가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망자를 기억하는 그만의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의례적인 애도 글의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애도 서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www.kci.go.kr

## 참고문헌

원전자료
김수항, 『文谷集』.
양예수, 『醫林撮要』.
이식, 『澤堂集』.
장혼, 『而已广集』.
홍만선, 『山林經濟』.

단행본 및 논문
김동준, 「而已广 張混 漢詩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보완적 고찰」, 『한국한시연구』 30, 한국한시학회, 2022, 291~344쪽.
김성은, 「而已广 張混의 한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82쪽.
박동욱, 「천연두, 그 아픔과 상실의 기억 -장혼(張混)의 「기척(記慽)」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52, 우리어문학회, 2015, 261~288쪽.
임규완, 「張混 編 『詩宗』 연구」, 『민족문화논총』 7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0, 249~276쪽.
정승경, 「宋奎濂家 所藏 『先札』을 통해 본 痘瘡의 발병과 치료 경위」, 『대동한문학』 70, 대동한문학회, 2022, 163~197쪽.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정담, 2001, 1~2000쪽.

WEB DB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의 지식콘텐츠KRpia http://www.krpia.co.kr/

www.kci.go.kr

ABSTRACT

# Mourning Through the Record of a Dying Body
## -Focusing on Jang Hon's "Gicheok(記憶)"-

Kang, Soojin

Jang Hon, a commoner writer (yeohang munin) active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composed "Gicheok(記憶)" to mourn the death of his six-year-old grandson, Jeungheup, who passed away in 1807. A characteristic feature of "Gicheok" is that its content focuses more on recording the process of the grandson's dying than on expressing grief.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Jang Hon, in a text intended to mourn his prematurely deceased grandson, primarily recorded the process of the deceased's dying instead of expressing the sorrow of loss.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why he chose this particular method of mourning.

Jang Hon meticulously and realistically documented the material changes in his grandson's body from the onset of the illness to his death. This detailed record aimed to concretely evoke the author's painful experience of failing to treat his grandson suffering from smallpox and ultimately facing his death. He elaborately recorded the symptoms that appeared on his grandson, the types of medicine administered, the resulting effects, and the changes observed in his grandson's body from the point treatment was abandoned until his final moment. By thoroughly documenting his grandson's dying process, Jang Hon intended to return to the period when his grandson was ill and reflect upon his own failure to properly fulfill his role as the head of the family at the time.

Furthermore, by recording the experience of losing his grandson on the last day of the year, the author sought to commemorate his grandson's final moments and, through this act, accept the reality of his loss. In essence, the author composed "Gicheok" with the intent to remember and mourn his grandson's death through the act of writing. To achieve this,

www.kci.go.kr

he adopted the fundamental form of existing elegiac writings but restructured the content by introducing modifications.

Jang Hon′s "Gicheok" presents a new mode of mourning: one that utilizes the act of recording to evoke the memory of the deceased′s dying body, thereby facilitating the acceptance of the sorrow of loss. Moreover, its significance lies in deviating from the conventional, abstract representation of the human process of death found in ritualistic elegies. By depicting this process realistically and concretely within the literary domain, it suggests a novel method for commemorating the deceased.

Key Words Jang Hon, Gicheok(記憾), mourning, body, death

논문투고일: 2025.10.22.
심사완료일: 2025.11.11.
게재확정일: 2025.11.20.

www.kci.go.kr

www.kci.go.kr